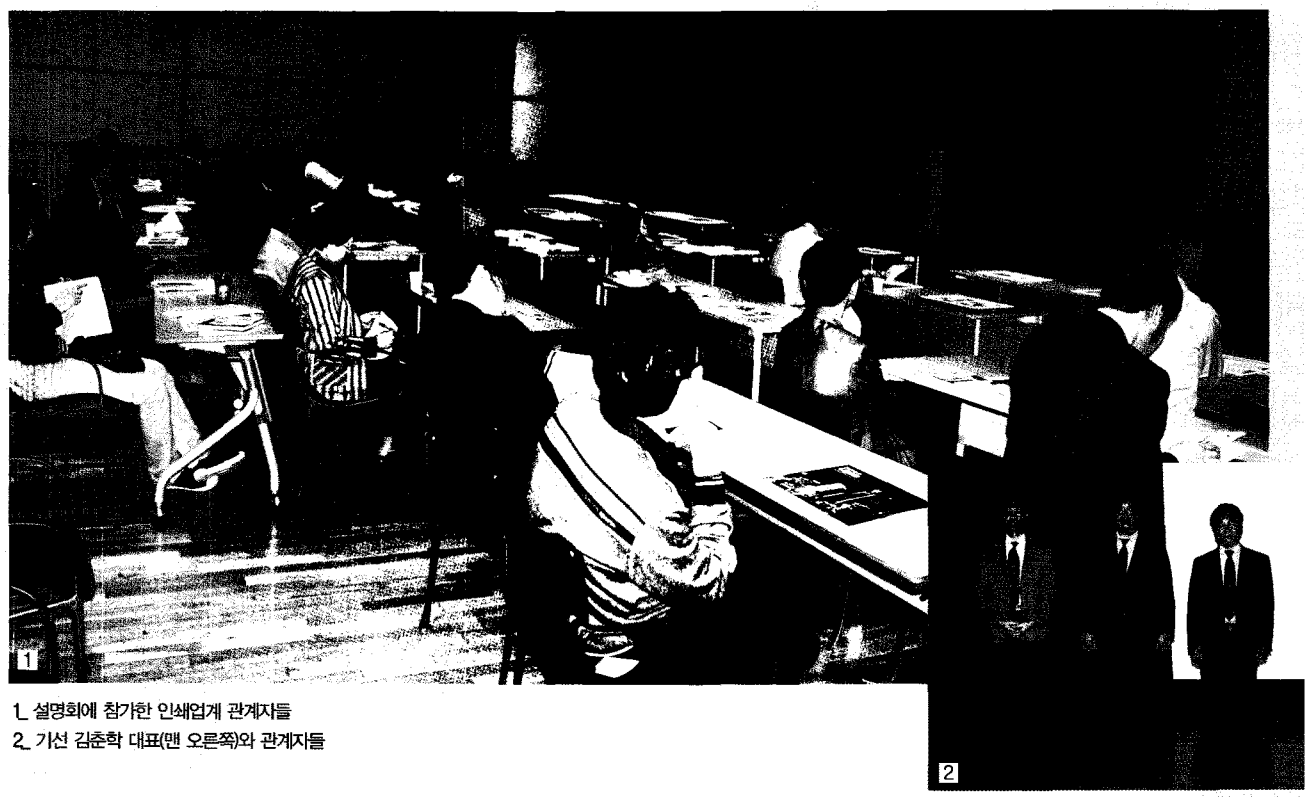
저비용 고효율의 새 비즈니스로 활성화 방안 제시



1_ 설명회에 참가한 인쇄업계 관계자들
2_ 기선 김춘학 대표(맨 오른쪽)와 관계자들

디지털 인쇄후 가공 전문기업인 기선(대표 김춘학)은 씨엠디자인(대표 최진영), 자회사인 ㈜포토북(대표 안기식)과 함께 지난 10월 14일 파주출판단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디지털 프린팅의 포토북 및 포토앨범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디지털 포토북(앨범)시장 활성화를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비즈니스 기법을 제시하고 국산장비의 보급과 활용을 통한 양질의 제품생산할 수 있는 후가공기법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한편 2차 설명회는 지난 10월 26일 대전역 충남본부 1층에서 열렸다. 1차 설명회의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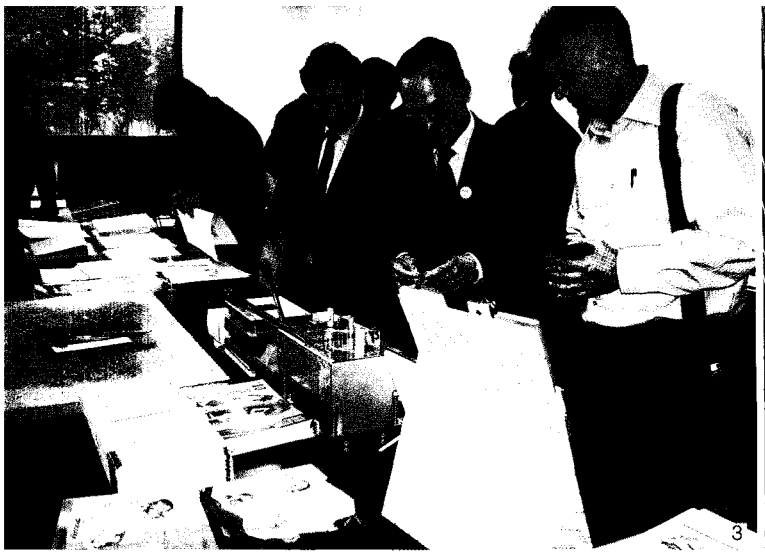
앨범시장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기법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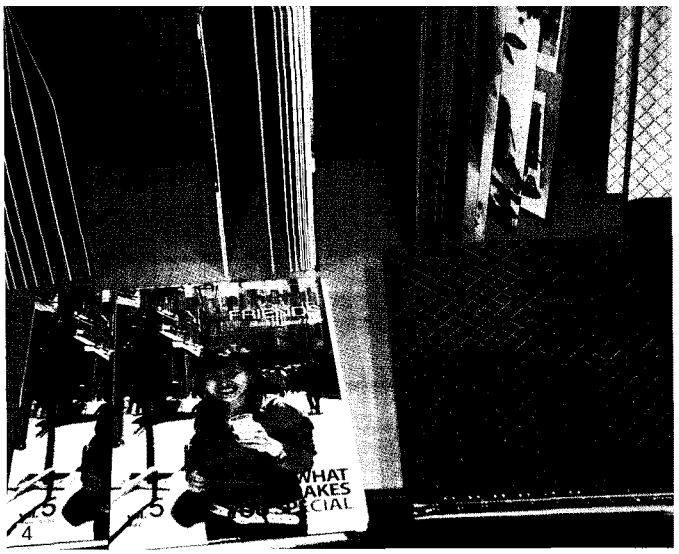
기선은 이번 설명회의 취지를 아직까지 생각에 비해 더딘 성장과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는 디지털 포토북 및 앨범 시장의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데 두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적으로는 저비용 고효율을 실현하기 위해 국산 장비의 보급과 활용으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처리하는 후가공 기법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선은 엔터와 함께 신규 합작 법인인 ㈜포토북을 설립해 경제성과 수익성을 지닌 디지털 인쇄물의 포토북이나 앨범 비즈니스의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디지털 포토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는 기회

기선은 앞으로 디지털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수록 전문적인 기능이 없이도 일반인들이 촬영한 사진을 개인의 취향대로 직접 편집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개인적인 내용이 포함된 가변적인 데이터 가공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다양한 형식의 포토북 및 미니앨범 등이 많아지게 되어 기존의 인쇄사와 출력사 등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과거의 삽입식, 접착식 앨범에서 고급스러운 압축 앨범을 비롯, 다양한 포토북으로 대중화되었으며 데이터의 가변성, 사이즈의 유연성, 경제성 및 제작의 자유로움으로 포토북 시장이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었다. 기선은 결국 디지털 포토 시





3_ 시연회를 둘러보고 있는 관계자들
4_ 기선에서 제작한 샘플북
5~6_ 아동용 포토북 표지와 내지
7_ 시연회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장의 성장은 포토북이나 앨범을 어떤 수준의 디지털 인쇄물로 제작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기존의 방식이 그 생산 공정의 한계로 인해 생산대비 수익성이 사실상 없으며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가 경쟁도 한계에 도달해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차별화된 마케팅 솔루션과 서비스 제공해 시장 개척

이번 설명회에서 강조한 것은 기존 포토북 시장에 대한 제작 기법과 비즈니스 모델로는 더 이상의 시장 확대와 수익 창출이 어렵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한계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선은 온라인 B2C용 포토북 마케팅 솔루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으로 포토북 및 앨범의 주요 고객인 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자동 앨범편집 POD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고객들은 포토북의 프랜차이즈 또는 협력기업으로 B2B비즈니스를 하기만 하면 기선이 제공하는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기존의 방식에 비해 최고 10배를 넘어서는 매출액(1일 생산 기준)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선측은 밝히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앞선 대처로 시장 선도

이제 디지털 포토북은 압축앨범에 버금가는 고품질과 대중적이 가격이 되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어디서라도 편리하고 저렴하게 좋은 품질의 포토북 앨범을 제작, 공급할 수 있는 솔루션과 시스템을 갖춘 업체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채로운 편집 방식과 디자인 템플릿을 적용시켜 많은 기념일이나 크고 작은 행사에서 좋은 추억을 남기고자 하는 고객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만 이 분야에서 성공할 것이며 기선은 이를 위한 충실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을 지원하는 기선의 제품군

어디까지나 디지털 후가공 장비 생산업체를 지향하고 있는 기선은 사진앨범 및 포토북을 자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자동제책기 디지 바인더와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기술로 모든 소형 디지털 인쇄물의 코팅에 적합한 디지 UV코터, UV, 프라이머, 수성 액상 코팅 등 3가지의 기능을 갖춘 디지 멀티코터 등을 소개했다.

디지 바인더는 기존에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압축앨범 제작을 자동화하여 생산성 증대, 비용의 절감을 가능하게 했으며 180도 펼침이 가능하게끔 인쇄물을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콤팩트 디지UV 코팅기는 어떤 종류의 소형 디지털 인쇄물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코팅기로 간편하면서도 함축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외에도 다품종 소량 하드커버 제책 작업에 뛰어난 적성을 가진 디지 케이스 인은 북 블록과 하드커버가 쉽고 정확하게 합본되도록 처리한다.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